



두 번의 기회, 한 번의 실천

기증자 백선용

2001년 2월 어느 날 군대 후임병의 여자 친구가 재생불량성빈혈로 골수 이식이 절실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에게 골수 기증 신청을 부탁하는 후임병의 말에 절친한 사이였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골수 기증 신청서를 작성했다. 아마도 내가 골수기증을 하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들었고 나 자신도 특별한 봉사 의식이나 희생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나는 그 해 3월에 전역을 하였고 골수 기증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생활하고 있었다. 2002년 10월경 협회로부터 13세 소년과 유전자가 일치하여 골수 기증의사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나는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집안에 안 좋은 일까지 있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기에 기증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무엇보다도 얼마 남지 않은 교원임용시험이 마음에 걸렸지만 고민 끝에 동의를 하고 1차 혈액 정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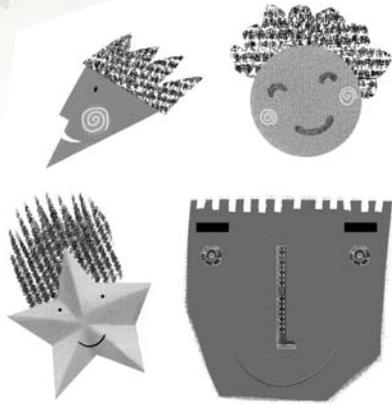
네이터가 그 소년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었다고 알려 와서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그 소년이 골수이식 시기가 늦어져서 나쁜일이 생긴 건 아닌가하는 걱정도 되었다. 그렇게 첫 번째 골수 기증의 중요한 갈등 상황은 끝이 났다.

골수를 여러 번 기증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에게 다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2004년 9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조문희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해왔다. 50대 아주머니가 나의 골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결정이 중요했지만, 며칠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를 것이기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고 직장에 있어서 며칠씩 시간을 낸다는 것이 결말들이 되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를 믿고 내가 결정하도록 맡겨 주었다. 별다른 반대가 없었고,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니까 나는 어렵지 않게 결심을 했다. 그 사실은 나의 골수와 며칠의 번거로움만 감수한다면 누군가가 몇 십 년의 삶을 더 살 수가 있다는 것

이다. 그래서 이 삼 일 후에 코디네이터에게 기증을 하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조문희 코디네이터가 나의 근무지까지 와서 정밀 검사를 위한 혈액채취를 했다. 검사 결과도 좋아서 2005년 1월 하순경 기증을 하게 되었다.

골수 채취를 하는 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간단한 일이었다. 나의 경우는 보통 잘못된 상식으로 알려진 척추에서 골수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 혈액 속으로 조혈모세포가 빠져 나오게 하여 성분헌혈을 하듯이 필요한 조혈모세포만 추출하고 다른 혈액들은 다시 내 몸속으로 돌려주는 것이었다. 채취하는 데 드는 번거로움이란 3일 동안 지정 병원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맞고, 이를 입원하여 그 중 하루의 4~6시간의 성분 헌혈하는 것처럼 조혈모세포 채취하고 삼 일째 되는 날 퇴원을 한 것이었다. 내가 신경 쓸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모든 절차를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이 쉽고 힘든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골수를 채취하기 전 3일 동안 맞는 주사약이 감기몸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서 잠을 약간 설쳤고 채취하는 4~6시간 동안 주사바늘이 팔에 꽂혀 있어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비하면 하찮을 정도의 일이 아닐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골수 기증하는 일이 간단한 일인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 골수 기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생명의 중요성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낀다.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는



행복함을 다시 생기는 나의 일부를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세상의 공짜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골수 기증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하늘은 알아서 나에게 상을 주었다. 골수 기증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방학 중이었지만 학교에서 공문 관계로 전화가 왔었고 그 일로 학교에 갔다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국비 해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골수 채취한 울산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기증을 한지도 벌써 1년 9개월이 지나간다. 골수 기증으로 인해 나에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일상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어쩌다가 어느 환자가 유전자 조식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는데도 기증자가 기증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안타까워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쫓아가서 내 경험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 한 편에 안고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Be the miracle!

기증자 소혜경 님



기적은 생각보다 먼곳에 있지 않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기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다시 태어날 한 생명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

4년 전 어느 여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백혈병에 걸린 부인에게 맞는 공여자를 찾아주기 위해 한국에 온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그 방송을 보게 됐고 안타까운 사연에 '어쩌면 내가 환자와 유전자가 맞는 사람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어 방송 끝에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

그렇게 찾아가게 된 곳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작성양식의 기증 목록을 꼭 훑어보았다. '세상에!' 내가 기증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았다.(그냥 묻히기 아까울 정도로 우리 몸 어디 하나 안 쓰이는 곳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놀라기에 앞서 선통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란 생각에 작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 목적대로 골수 기증 의사를 밝히고 내 혈액 샘플을 등록했고 다소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왔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연의 주인공과는 인연이 닿질 않았다. 때가 언제가 되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흔쾌히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나에게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2년 정도 지났을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내 HLA항원이 환자와 거의 일치하다는 기적적인 확률은 후에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사실 크게 한몫했다.

막연하지만 늘 기다렸던 그 전화가 반가웠던 건 비단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다만 걱정됐던 것이 있다면 부모님의 동의. 제일 중요한건 본인의 의사겠지만 가족의 반대로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기에... 꼭 하고 싶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꼭 해야했었던 나의 주장에 못이

는 척 설득 당해주시며, 또 믿고 기도해주신 멋진 우리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사랑합니다.) 두려운 것은 없었다.

수술 전에 틈틈이 이뤄진 건강검진, 자가 헌혈 등을 통해 내 몸을 한번 돌아보게 됐고—다행히 나는 매우 건강했다—마침내 수술 날 아침(두둥!). 수술실로 올라가는 침대를 끌어주시던 선생님이 눈이 많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됐다며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못 보여주는 게 아쉽다며 수술 잘 마치고 나오라고 건투를 빌어주셨다. 약간 긴장했던 수술실 안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숨 크게 들이마셔요” 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수술은 끝이 났다. 골반 쪽에 지혈을 위한 모래주머니가 배겨 조금 불편 하긴 했지만 거울 속에 퉁퉁 부은 내 모습에 웃음이 났다.

‘끝났네..’ 내가 태어나던 그 날도 눈이 많이 왔단다. 새하얀 창밖을 보다 묘한 일체감을 느끼며 새로 거듭날 한 생명을 눈과 함께 축복했다. 이쯤 되면 모두들 묻겠지? “아프지 않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하루는 아프다. 통증에는 개인차가 있다는데 내 경우 회복이 좀 느린 편이었기에 일주 일정도 걸렸지만(사실 수술 다음 날 부터 앓고 걷는 건 다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아주 자유로운 움직임!) 그 후론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혈모세포를 받으신 분도 건강을 회복중이라는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하다. 부디 더 이상의 아픔 없이 계획했던 그리고 소망했



던 모든 것들 누리고 계시길!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나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먼 길까지 마다않고 와 간호해 주었던 해란, 진주, 진희언니에게도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 주셨던 선생님, 건강검진을 도와주신 조문희선생님, 빠른 쾌유를 빌며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신 이영민선생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고 찾아주신 주변의 많은 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기적은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기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다시 태어날 한 생명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Be the miracle!